

대행 스님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산 법회를 위해서 큰스님께서 아주 극치의 설법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연합회의 총무부장 스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첫째, 불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잘 아셔야 됩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곤충,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달을 하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무전통신 또는 통신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가고요. 이렇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찰나의 이 진리를 볼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에 전달과 전달을 하는 것을 교(敎)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그렇게 미묘하고 광대하고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라도 불교 안에 들어 있지 불교 바깥에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고 스님 노릇 하는 사람들만 불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바로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등 동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인해서 바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각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수화풍으로 뭉쳐져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모두…, 지금 전력도 물에서 얻죠? 지수화풍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자기를 안다면 천차만별의 모든 용도에 따라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마음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체가 움죽거리는 삼합이 하나로써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써 육체를 다스리면서 또 마음은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근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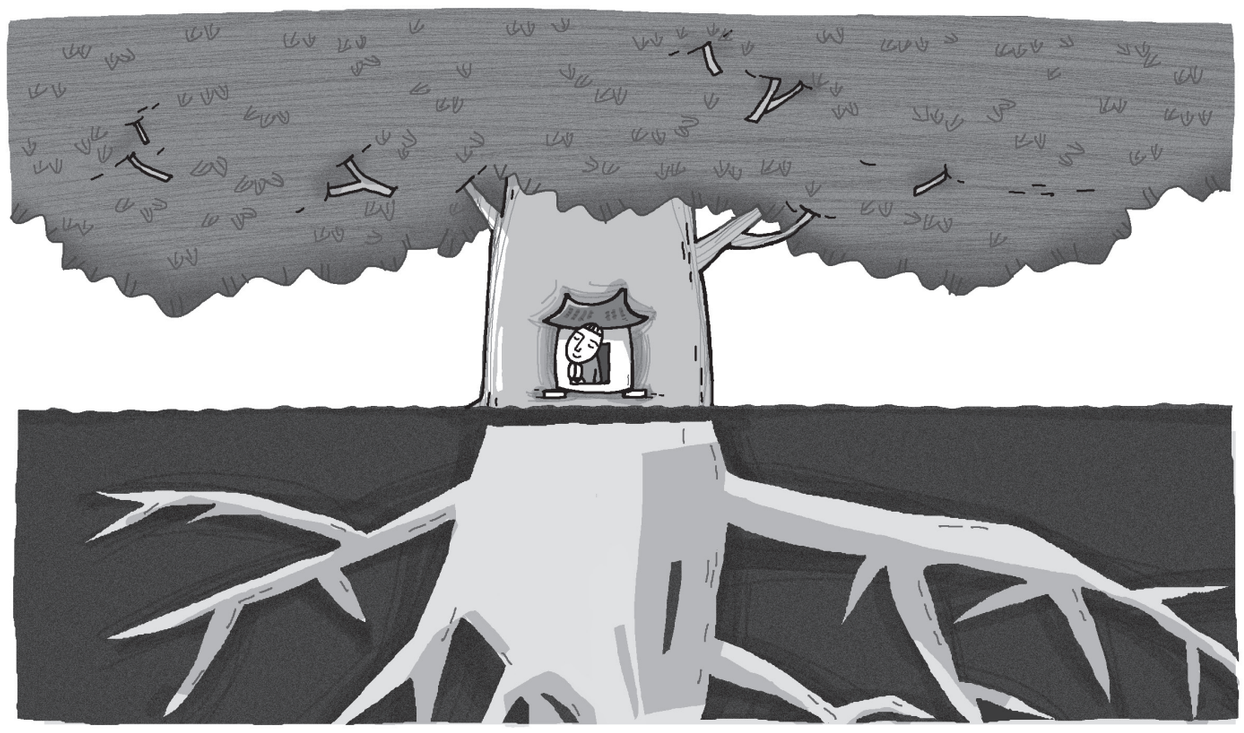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더불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걸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도 이름이요, 자아도 이름이요, 불성도 이름이요, 주인공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닌 이름이라면 정말 그 길을 손살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 이전 그 자체가 바로 나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한마음의 근본! 영혼의 근본이라고도 하죠. 즉 뿌리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 나무가 뿌리로 인해서 모든 영양을 흡수해서 푸르르게 살고 있듯이 여러분도 영혼의 근본 뿌리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기 이전 그 자체, 영혼의 근본이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차원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겠죠.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들고 나오게끔 형성시키는 것도 자기의 그릇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자기가 영혼의 근본으로서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지금은 정자 난자라고 그러죠? 자기 그릇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같은 그릇의 한 부부, 즉 인간의 부부라든가 개, 짐승의 부부라든가 곤충의 부부라든가 어떠한 부부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형성시켜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붙어 돌아가는 게 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영혼은 근본이 아닙니다. 영혼은 바로 업식에 의해서 또 그림자처럼 붙어서 형성이 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벌써 몸에 결부가 돼서 나오죠. 이게 생각하면 아주 복잡합니다만 복잡하더라도 잘 들어 보세요. 그렇지만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탄생을 했으니 이 몸뚱이는 그 업식의 집합소란 말입니다.

몸뚱이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죠. 몸뚱이는 마음의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이자 바로 자기 자생 중생들이 있는 집합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누구 탓을 할 것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 업식 속에서 뭐든 자기가 한 대로,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이 모두가 합쳐져서 차례차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죠.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인간의 컴퓨터는 오신통으로 인해서 자동적인 컴퓨터가 됩니다. 오신통이란 자기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업식이란 말입니다. 업식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만 과거가 아니라 어저께도 과거요, 아까도 과거요, 한 시간 전도 과거요, 일 초 전도 과거란 말입니다.

몸속에 자생 중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생 중생들과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 자체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위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기 자생 중생들을 다스려서 제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스려서 제도를 안 하면 항상 번뇌 망상과 모든 것에 끄달리게 되니까 제도를 해서 그 끄달리는 굴레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졌고 우주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 불교를 숭상하게도 됐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알아야 하고, 먼저 나부터 믿어야 하고, 먼저 나부터 발견해서 자기의, 즉 이전 부(父)와 현재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관습이나 업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너희 마음대로 쓰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질 못해요. 아니, 내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해요.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면 중생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부처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를 세워 놓고 부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체제불 속에 일체 중생이 들어 있고 일체 중생 속에 일체제불이 들어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그 한마음조차 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부모자식지간이나 형제지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